

‘베테랑의 힘’... 신지애, US여자오픈 골프 준우승

뒷심으로 공동 2위 ... 김효주 6위·유해란 8위 ‘톱 10’
한국계 미국인 엘리슨 코푸즈 우승 ‘페블비치의 여왕’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베테랑 신지애(35)가 4년 만에 출전한 US여자오픈에서 준우승하는 저력을 뽐냈다.

신지애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링크스(파72·6424야드)에서 열린 제78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11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하나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를 친 신지애는 찰리 헐(잉글랜드)과 공동 2위에 올랐다.

우승자 엘리슨 코푸즈(미국·9언더파 279타)와는 3타 차다.

신지애는 2018년 2월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 공동 7위 이후 5년여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메이저대회 중엔 브리티시 여자오픈(현 AIG 여자오픈)에서만 두 차례(2008, 2012년) 우승한 신지애는 US여자오픈에선 2010년 공동 5위를 뛰어넘는 개인 최고 성적을 거뒀다.

LPGA 투어 11승을 비롯해 각종 프로 대회에서 통산 64승을 올린 신지애는 2014시즌부터는 일본 투어에 전념하고 있다.

LPGA 투어는 일본,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 정도만 가끔 나섰던 그는 2019년 5월 열린 US여자오픈(컷 탈락) 이후 모처럼 미국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

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할머니에게 페블비치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밝힌 그는 난코스에서 여전한 기량을 확인했다.

3라운드 선두에 5타 뒤진 5위에 자리한 신지애는 이날 전반 6번 홀(파5)과 8번 홀(파4) 버디를 슈아내며 선두권을 뒤흔었다.

후반 들어 10번 홀(파4) 보기와 11번 홀(파4) 버디를 맞바꾼 뒤 14번 홀(파5)에서 3m 남짓한 버디 퍼트를 넣어 3위권으로 도약했다.

16번 홀(파4)에선 6m 넘는 까다로운 파 세이브에 성공하며 위기를 넘긴 신지애는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공동 2위가 되는 버디 퍼트를 넣은 뒤 주먹을 불끈 쥐며 자축했다.

신지애는 “페블비치에서 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었기에 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렇게 됐다. 우승하지 못했지만, 챔피언이 된 것처럼 기쁘다”며 “내 경기와 기분, 팬들을 모두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LPGA 투어 2년 차 코푸즈는 메이저대회에서 투어 첫 우승을 달성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코푸즈는 필리핀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선수다.

이 대회 전까지 지난해 8월 ISPS 한다 월드 인비테이셔널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다던 그는 역대 여



신지애가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린 제78회 US여자오픈 골프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 프로 대회 최다 상금이 걸린 이번 대회를 제패하며 상금 200만 달러(약 26억원)를 거머쥐었다.

3라운드까지 선두 하타오카 나사(일본)에게 한타 뒤진 2위였던 코푸즈는 1번과 3번 홀(이상 파4) 버디로 초반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간 하타오카와 공동 선두를 오갔다.

전반이 끝났을 때는 두 선수가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으나 코푸즈가 10번 홀(파4)에서 약 2.6m 버디 퍼트를 떨어뜨리며 단독 선두를 되찾았다.

12번 홀(파3)에서 티샷을 병커에 빠뜨린 뒤 파 퍼트가 5m 가까이 남아 위기를 맞았던 코푸즈는 파를 지켜내며 기세를 올렸고, 같은 홀에서 하타오



US오픈 우승 후 트로피 거머쥔 한국계 미국인 엘리슨 코푸즈. /연합뉴스

카는 한 타를 잃으며 두 타 차로 벌어졌다.

이후 하타오카는 14번 홀(파5)에서도 보기에 그쳐 2위마저 내줬고, 코푸즈는 같은 홀 버디로 2위와 격차를 3타로 만들며 승기를 굳혔다.

신지애 외에 한국 선수 중엔 김효주가 공동 6위·유해란이 8위로 톱10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나성범

상승세 KIA, 전반기 막판 스퍼트

T 타이거즈 전망대

체질을 바꾼 ‘호랑이 군단’이 전반기 막판 스퍼트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는 11일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3연전을 끝으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올스타브레이크가 아쉬울 정도로 마지막 3연전을 앞둔 KIA의 분위기는 뜨겁다.

KIA는 ‘변화의 한 주’를 보내면서 5연승 질주로 9위에서 6위까지 점프했다.

KIA는 지난 주 삼성과의 깜짝 트레이드를 통해 내야수 류지혁을 내주고 포수 김태균을 영입했다. 또 아도니스 메디나에 이어 손앤더슨까지 교체하는 초장수도 두었다.

메디나를 대신해 마리오 산체스가 새로 가세했고 지난해 로니 윌리엄스의 대체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었던 토마스 파노니가 다시 인연을 맺게 됐다.

산체스는 9일 KT 위즈를 상대로 KBO 데뷔전을 치렀고, 6.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첫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되면서 5연승 주역이 됐다. 변형슬라이더 일종인 스윙퍼를 주무기로 해 변화 무쌍한 변화구로 상대의 타이밍을 뺏고, 빠른 템포의 피칭과 안정된 제구로 합격점을 받았다. 무엇보다 상

오늘부터 삼성과 홈 3연전

연승의 힘은 뜨거운 타격

나성범·김도영 복귀 후 맹타

대의 이중 동작 견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색을 보여주는 등 배정도 눈에 띄었다.

외국인 투수 전면 교체로 선발진에 무게를 더한 KIA는 지난 주 ‘경합’을 통해 불펜진 안정화도 꾀했다.

경험 많은 전상현과 장형식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하면서 고졸 2년 차이자 첫 풀타임 시즌을 보내고 있는 최지민의 부담을 덜어줬다.

무엇보다 뜨거운 타격이 KIA 연승을 부른 힘이 됐다. 비로 한 경기를 쉰 KIA는 5경기에서 0.317의 팀타율을 찍었다. 한방의 힘이 눈에 띈다.

KIA는 지난 주 9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팀홈런 1위에 올랐다.

부상에서 돌아온 나성범이 기대했던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나성범은 지난 주 4개의 홈런을 쓸어 담으면서 거포의 면모를 보여줬고, 8타점도 만들었다.

빠른 발로 상대를 흔든 김도영은 힘도 과시했다. 김도영은 5일 SSG전에서 시즌 마수결이포에

이어 연타석 홈런을 날리면서 KIA 공격에 힘을 실어줬다.

‘기록의 사나이’ 최형우의 홈런 기록도 만들어졌다.

최형우는 6일 SSG에서 10호포에 이어 11호포까지 만들면서 16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주인공이 됐다.

5일 포수 마스크를 쓰고 선발로 출전했던 한준수도 데뷔 첫 홈런과 함께 첫 3안타 경기를 펼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페이스로 승리를 만들었던 KIA는 5연승 기세를 이어 올 시즌 5전 전승을 이뤘던 최하위 삼성을 상대한다.

윤영철이 선발진 스타트를 끊고, 파노니도 복귀전을 소화하게 된다. 13일 경기를 끝으로 21일 두산과의 홈경기까지 올스타브레이크를 보내게 된 만큼 마운드 총력전이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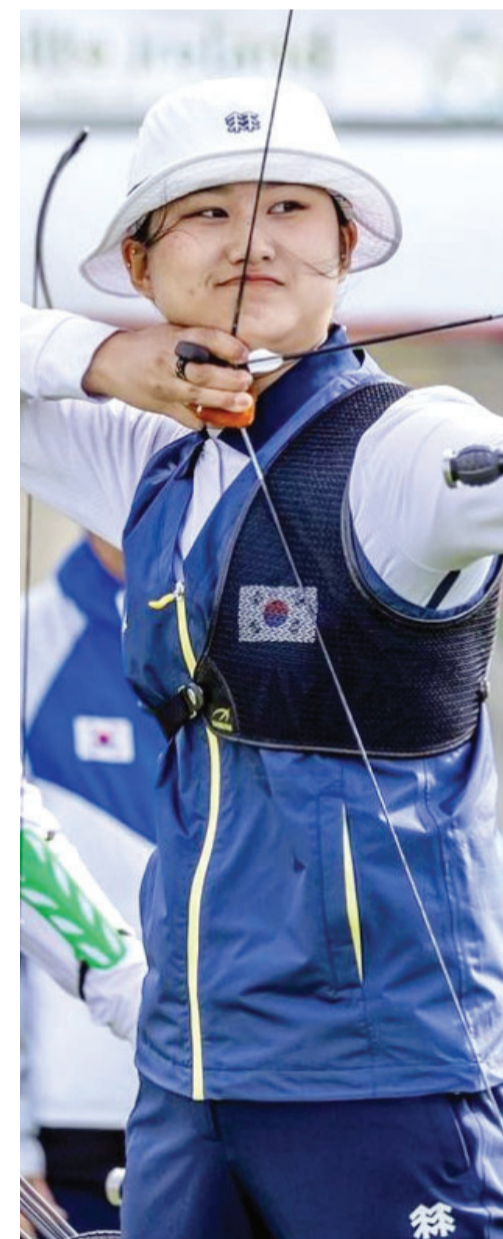
트레이드 이후 삼성과 처음 만나게 되는 만큼 옷을 바꿔 입은 김태균과 류지혁, 두 이적 선수에도 시선이 쏠린다.

3위 두산이 8연승 질주를 하면서 4경기 차 밖에 있지만 4위 롯데와 두 경기 차 밖에 나지 않는다. 5위 NC는 한 걸음 밖에 있기 때문에 KIA가 분위기를 이어 더 높은 곳에서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여대 오예진 2관왕 ‘명중’

2023세계 양궁 청소년선수권



오예진

차세대 양궁스타 오예진(광주여대 2년)이 2023세계 양궁 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오예진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아일랜드 리머릭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개인전 결승에서 팀 동료 염희정을 상대로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6-5로 꺾고 우승했다.

오예진은 16강에서 독일, 8강에서 이스라엘, 4강에서 인도 선수를 완파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오예진은 염희정(경희대), 서보은(순천대)과 팀을 이룬 단체전에서 한수 위 기량으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한국 여자양궁은 16강에서 스위스를 6-0으로 꺾고 8강에 진출, 영국을 슛오프 접전 끝에 5-4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전에서 폴란드를 6-2로 꺾은 한국은 결승에서 프랑스를 6-0으로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다.

오예진은 “첫 출전한 세계대회에서 개인, 단체전 2관왕을 차지해 기쁘다”면서 “예선에서 강풍 등 악천후로 고전했으나, 컨디션을 회복한 후 차분히 경기에 나서 좋은 결과를 거둔 것 같다. 내년 파리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예진은 울산스포츠클럽고 2학년 때 태극마크를 다는 등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을 이을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았다.

2021년 대통령기 전국 양궁대회 4관왕, 전국체전 2관왕에 올랐다. 국가대표로 첫 출전한 아시아양궁 선수권대회에서는 유수정(현대백화점)·임해진(대전시체육회)과 팀을 이뤄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지난해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여대부 개인전 금메달 등 4관왕을 차지하는 기쁨을 토했다.

오예진은 광주여대에 입학, 안산을 길러낸 김성은 감독의 지도로 급성장하는 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4년만에 아시아 여자주니어핸드볼 우승

오세일(광주도시공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이 중국을 완파하고 아시아 여자 주니어(U-19) 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4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한국 여자 주니어 대표팀은 9일 홍콩 침사추이의 카우롱 파크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 여자 주니어 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중국에 34-15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2019년 대회 이후 4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참가하지 않은 2022년 대회를 제외하면 이 대회에서 빠짐없이 16차례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4경기과 대만과 준결

승전(전-20), 중국과 결승전까지 6전 전승 행진을 벌이며 ‘퍼펙트 우승’을 달성했다.

한국은 또 상위 5개 팀에 주는 2024년 북마케도니아 세계 여자 주니어 선수권대회 출전권도 획득했다.

결승전에서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9골을 터뜨린 센터백 김민서(삼척시청)가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또 이해원(대구시청)과 김지선(일신여고)이 각각 이번 대회 최우수 라이트백, 레프트윙으로 선정됐다.

한국은 전반을 21-7로 여유롭게 앞서며 마쳐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케 했다. /연합뉴스